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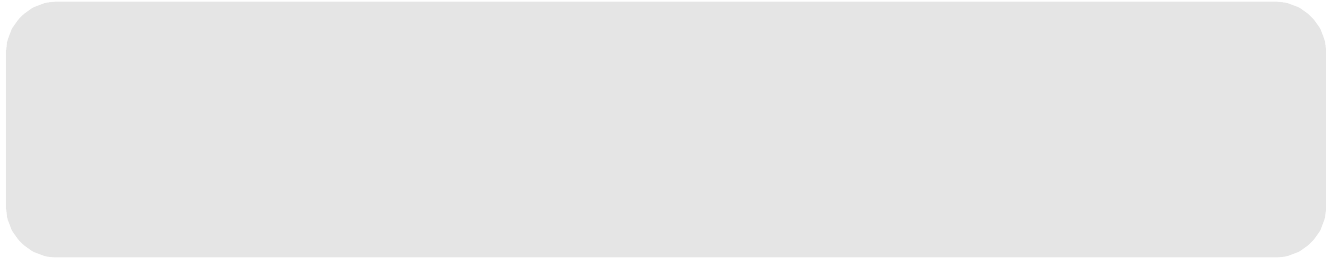
# 형·동생 호칭 탓에 싸우다가 목숨 잃어

**WARM UP**

뉴스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추측해 보세요.

**LISTENING 1**

뉴스의 내용을 듣고 들리는 단어와 표현을 메모해 보세요.



Q. 이 뉴스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의 복잡한 호칭
- ② 가족 간의 호칭 문제
- ③ 호칭을 잘 사용하는 방법
- ④ 호칭 문제로 생긴 사망 사고.

**LISTENING 2**

뉴스를 다시 듣고 알맞은 답을 고르세요.

1. 뉴스에서 소개한 사건의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박모 군은 사고 직후에 사망했다.
- ② 이군과 박군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 ③ 이군은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였다.
- ④ 이군과 박군은 나이 차이가 두 살이다.

2. 박모 군이 사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총을 맞았다.
- ② 교통사고를 당했다.
- ③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 ④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3. 이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박군은 아버지한테서 자주 혼났다.
- ② 이군은 미국 유학을 원하지 않았다.
- ③ 박군은 이군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 ④ 이군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하지 못했다.

4.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① 부모들이 자식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 ②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 ③ 나이가 달라도 학년이 같으면 친구로 지내야 한다.
- ④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문제다.

**DICTATION**

뉴스를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위치하다	주먹다짐	숨지다	따지다	간극
터울	공통점	갈등을 빚다	입을 모으다	배려

미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저녁 뉴욕 북쪽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년은 같지만 두 살 터울인 19살 이모 군과 17살 박모 군은 형·동생 호칭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결국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이모 군이 박모 군을 밀치자 박모 군은 계단 아래로 굴렀고, 머리를 다쳐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이틀 뒤 숨졌습니다. 둘 다 올해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친하게 지냈지만 호칭 문제로 종종 갈등을 빚었다고 친구들이 전했습니다. 선후배를 철저히 따지는 한국 문화와 그렇지 않은 미국 문화의 간극이 비극을 부른 셈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한국에서 온 청소년이면 누구나 겪는 문화적 갈등이기 때문에 부모와 주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교민들은 입을 모으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내용 단위로 끊어서 따라 읽어 보세요.